

# ‘촛불’ 최악의 충돌 수백명 부상

서울 도심에서 28, 29일 이틀동안 열린 ‘1박2일’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가 속출했다.

◇진압봉 진압 본격화=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1박2일’ 촛불집회(경찰 추산 1만5천명, 주최 측 추산 20만명 참가)는 30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경찰과 시위대는 물대포, 진압봉, 돌멩이, 쇠파이프, 플라스틱병으로 무장한 채 치열하게 대치해 마치 80년대 시위현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경찰은 진압봉을 적극 활용했으며, 색소를 탄 물대포를 처음 사용했다.

## 서울 물대포·쇠파이프 격렬 대치

## 광주는 문화공연·거리행진 ‘차분’

강제해산에 나선 전경들은 달아나는 시민들의 머리와 등, 허리 등을 진압봉으로 때리고, 심지어 넘어져 있는 여성에게 발길질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 과정에서 이화학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이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 오른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YMCA 회원 9명이 부상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 시민 강도(30)씨도 경찰 쪽에서 넘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고 윤도(26)씨는 눈 부위를 둔탁한 물체에 맞아 병원에 이송됐다.

이번 시위로 29일 오후 현재 55명이 연행됐으며, 경찰 110여명과 시위

대중 300~400여명이 부상했으나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집회 주도 단체 간부 첫 구속=서울경찰청은 28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35)씨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윤희숙(여·32)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들의 가담 정도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또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

표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대책회의 관계자를 검거해 촛불을 잠재우려고 나선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광주는 평화집회 이어가=시위대와 경찰이 크게 충돌했던 서울에 비해 광주의 촛불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28, 29일 이틀동안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경찰의 교통통제 속에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각종 문화공연과 학생, 노동자, 종교인 등의 자유발언으로 진행됐다.

시민 400여명은 촛불집회를 마친 뒤 금남로에서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인원기자 ajh@kwangju.co.kr·연합뉴스

### 끈적거리는 하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구름 많음	20~28℃
포항	구름 많음	19~26℃
여수	구름 많음	19~24℃
완주	구름 많음	19~26℃
구례	구름 많음	19~29℃
해운대	구름 많음	19~26℃
남해	구름 많음	19~27℃
순천	구름 많음	17~27℃
영광	구름 많음	18~28℃
진안	구름 많음	18~27℃
전주	구름 많음	18~27℃
남원	구름 많음	17~28℃
홍성	구름 많음	16~22℃

서울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사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사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사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11:03 썰물 < 04:54  
목포 밀물 < --:-- 썰물 < 16:45  
여수 밀물 < 06:13 썰물 < 00:17  
여수 밀물 < 19:10 썰물 < 12:22

▲해돋이 05:21 ▲해질 19:51 ▲달돋이 01:59 ▲달질 17:0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1(화)	2(수)	3(목)	4(금)	5(토)	6(일)
날씨						
최저/최고	20/26	21/26	21/26	20/30	21/29	21/29

# 국회의원도 맞았다

## 서울 촛불집회 광주·전남 의원들 수난

지난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진행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국민 보호단’으로 나선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찰로부터 두들겨 맞는가 하면 소화기 분말 세례를 받는 등 수난을 당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이날 새벽 1

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이 의원은 “깊은 무릎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며 “졸속 쇠고기 협상 끝에 촛불집회를 밀어버리려 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균 의원 측은 “의원이 과잉진압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선 순간 경찰이 소화기 분말을 발사했다”며 “국회의원에 소화기 분말을 퍼붓는 경찰이 일반 국민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분통을

## ‘국민보호단’으로 나섰다 경찰에 곤봉으로 얻어맞고 소화기 분말 세례에 ‘분통’

시계 광화문 인근 인도 위에 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곤봉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오히려 경찰은 ‘국회의원이 폭도를 선동하느냐’고 모욕했다며 구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과 김재균 의원(광주 북갑) 등도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는데도 경찰로부터 소화기 분말 세례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경찰을 관찰하

터뜨렸다. 또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로 이번 ‘국민 보호단’ 구성 아이디어를 내놓은 서갑원 의원(순천)도 경찰로부터 물 대포와 소화기 분말 세례 등을 받았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졸속 쇠고기 추가 협의에 이은 장관 고시 계제를 계기로 물 대포 등을 이용해 촛불을 끄려하고 있다”며 “촛불을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조만간 국민의 분노가 담긴 여론의 물대포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원기자 tuim@kwangju.co.kr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 100여명이 2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먹물이 담긴 물총을 쏘며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위리기자 jrwi@kwangju.co.kr

# 토요일 운전 조심...사고死 최다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토요일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5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지난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인사 사고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요일별 인사 사고 피해자 수는 토요일이 1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요일(14.5%)·월요일(14.3%)·일요일(14.0%)·수요일(13.7%)·화요일(13.5%)·목요일(13.3%) 순이었다.

서영중 손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은 “주 5일제의 영향으로 토요일에 나들이가 많아진 데다 혼자 운전하는 평일과 달리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요일별 사고 발생 비율만 놓고 보면 금.토요일이 15.4%로 똑같이 1위였고 이어 월요일(15.1%)·수요일(14.4%)·화요일(14.1%)·목요일(13.9%)·일요일(11.7%) 순이었다. 사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정비례 관계를 보이지는 않은 것이다.

요일별 사고 비율은 운전자가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남성은 주말에, 여성은 주중에 사고를 많이 냈다.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여성의 경우 40대(37.8%)·30대(29.8%)·50대(16.0%) 순인 데 비해 남성은 30대(28.6%)·40대(27.5%)·10대(18.1%) 순서로 차이가 났다. 사고 피해자는 사회 활동이 많은 30~40대가 전체의 47.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숨진 사람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4%에 달했다. /연합뉴스

# 로스쿨 본인이 앞당겨 8월말 선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이 대학 선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면 8월 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대학들의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로스쿨 본인이 시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중 로스쿨 본인이 대학을 선정하려 했던 교과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현장 실사 등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8월 말까지는

본인이 대학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본인이 심사를 위해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로부터 내달 4일까지 최종 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청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8월 중순 전국 25개 예비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원 충원 및 시설 확보 현황 등 로스쿨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8월 18~19일 이틀 간 현장 실사를 벌인 뒤 8월 말 최종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 AI 방역조치 해제

지난 4월초 이후 3개월동안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발생) 특별 방역활동이 종료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발생한 AI와 관련,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29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날자로 현재 ‘경계’ 단계인 AI 관련 국가위기경보를 해제하고, 보건복지부는 AI 인체감염 예방 비상근무 체제를 풀었다.

앞으로 AI 추가 발병만 없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8월 15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연합뉴스

# 노인 폭행 최민수씨 검찰 불기소 처분

서울서부지검은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연기자 최민수(46)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부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피해자가 처벌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유모(73)씨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

## ANYCHE CHAIR

Anyche  
자율적 판매를 해주는 최상의 인공 지능 판매 - 무인판매  
www.anyche.co.kr

## 새로운 국가자격증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약 40명)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 모집”

교육과정	차적증 1반 (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약제사)	차적증 2반 (서회계사, 산공차량인 검역차량)	
신규 모집반	08:00~18:00(월~금)	신규 경력자반	18:30~22:30(월~금)
신규 모반	09:00~13:00(월~금)	차적증 1반	19:00~22:30
신규 오반	14:00~18:00(월~금)	차적증 2반	14:00~18:00
신규 미반	18:30~22:30(월~금)	차적증 1반	14:00~18:00
		차적증 2반	

※교육 이수 후 시행일이 1급 국가자격증 교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국비 지원 혜택 (80%~100% 지급)  
근로자 능력개발 제도 소지자 혜택 (지원금도내 70%)

가족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문의 전화 062)364-1152~3  
062)368-2070